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3년간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고용부, 정부 관계부처·경제단체와 업무효율 향상, 초저출생 위기 극복 정부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추진 내달 30일까지 신청... 11월 선정

정부와 경영계가 근로자의 유연근무나 일·육아 병행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정책금융 우대 등 각종 파격 혜택을 부여한다. 추후 세제 혜택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파격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에 정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나선 이유는 유연근무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업무효율 향상 등 긍정 영향을 주는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5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에 참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것

으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기로 하고 혜택도 대폭 늘렸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

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곳 내외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정부·경제단체·수행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유예, 금리우대 등 혜택 외에도 고용장려금 심사시 가점, 가족친화인증 가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또 대출금리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추후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세제 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나 중대재해 기소의견 송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

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사업장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존에 고용부 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 ~ 8월 30일까지로,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선정서를 수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기관이 함께 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제습기, 제품별 성능 최대 1.7배 차이 있어

소비자원, 9개 제품 시험평가 캐리어·LG전자 ‘상대적 우수’ 일부 제품, 광고와 실측치 달라

제습기 9개 제품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제습능력 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습능력에서는 캐리어, LG전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의 품질, 경제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우선 24시간 동안 제습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 제습능능은 최소 12.2리터~최대 21.1리터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다.

캐리어(CDHM-C020LUOW), LG전자(DQ203PECA) 등 2개 제품이 20리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씽크에어(Thinkair DL30F) 제품은 12.2리터로 가장 낮았다.

보아르(VO-DE002), 씽크에어 2개 제품은 실측치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표기된 1일 제습량 수준이었으



백승일 한국소비자원 전기전자팀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평가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광고한 제습량과 실제 측정값에 차이를 보여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시스

나 더 높은 용량을 제습할 수 있다고 제품에 표시·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위니아(EDH19GDWA(A))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제습량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실측치는 92% 수준으로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위닉스(DXJE193-LMK)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로 작동 시 제습량 실측치(12.0 l)가 제품에 표시된 제습량(19.0 l) 보다 적어 표시치 수준의 제습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모드로 작동이 필요했다.

제습성능을 적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6~28평형 수준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시 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을 고려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풍량 조건에서 소음은 위니아, LG전자 2개 제품의 소음이 50데시벨(dB)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습효율은 삼성전자(AY18CG7500GGD), LG전자, 위닉스, 캐리어, 쿠쿠홈시스(DH-Y1652FNW)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전력을 월간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평균 8000원 수준으로 삼성전자 제품이 7000원(262W)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 제품이 1만원(363W)으로 유지비용이 가장 높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서부발전, 업무용 피시 ‘위북’ 도입

국산 가상기계 소프트웨어 탑재

한국서부발전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가격경쟁력과 보안 기능을 높인 업무용 피시 ‘위북(We-Book)’을 도입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위북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시연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업무용 피시 ‘온북’을 보완해 위북을 개발했다. 위북과 온북은 출장·재택 근무 환경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같으나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온북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각각 가상기계(VM) 소프트웨어, 고비용 외국산 가상데스크톱인프라(VDI)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반면, 위북은 가상데스크톱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국산 가상기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비용을 30~40%가량 줄이고 보안 기능도 고도화했다.

위북 개발은 외국산 운영체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개방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위북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시연회’를 진행했다. 위북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가격경쟁력과 보안 기능을 높인 업무용 피시다. /한국서부발전

형 오에스(OS)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부발전은 여기에 자체 기술을 녹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 폴리텍대, AI·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22개 기업·기관과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17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컨퍼스에서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22개 기업·기관과 ‘기술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핵심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선호 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결과(2023~2027년)’에 따르면, 분야별로 인공지능은 1만2800명, 클라우드는 1만8800명 등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과 22개 기업

은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특히 협약기업들은 임직원이 산업 현장 교수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에도 힘쓴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준 14개 캠퍼스 18개 학과에서 695명의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2개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정수 캠퍼스에 클라우드컴퓨팅과를 신설하고, 분당융합기술교육원 AI응용소프트웨어과는 커리큘럼 재 정비와 신규 장비 도입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연간 74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임준건 폴리텍대학 기획훈련이사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동서발전, 석탄분야 中소 업의 전환 지원

이피아이티 등 최종 12개社 선정

한국동서발전은 탈석탄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업의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오후 한국표준협회에서 업의전환 지원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석탄발전분야 중소기업에 전문가 진단을 통해 성장사다리형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초보기업에는 산업 전환 아이템 선정, 도약기업에는 기술 및 제품 개발, 성장기업에는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동서발전은 에너지전환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석탄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이피아이티 등 최종 12개사를 선정했다.

동서발전은 올해 업의전환 지원사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 BP사례 발굴을 통해 타기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피아이티 관계자는 “전년도 초보기업으로 참여해 주생산품인 전기집진기 필터를 화력발전소에서 수소연료전지 분야로 새로 진입했다”며 “올해는 도약기업이 돼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배 동서발전 동반성장실장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은 피할 수 없는 에너지산업의 당면과제”라며 “동서발전과 중소기업이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업의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